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5집(2019. 12.) pp.291~324.
https://doi.org/10.24993/JKLCY.2019.12.25.291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전쟁 경험 비교 연구

위종선*

국문초록

2018년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7,080만 명의 난민 인구의 절반이 18세 이하 어린이라고 한다.[1]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그와 관련된 폭력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어린이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겪는 공통된 경험을 살펴보고, 어린이 독자가 그림책을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될 전쟁에 대해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해 네 권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어린이의 전쟁 경험을 다룬 그림책을 선택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권의 그림책에서 어린이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됨과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였다. 전쟁의 원인, 전쟁 장면, 전쟁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전쟁의 원인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나 전쟁을 일으킨 대상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전쟁 장면 또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네 권의 책 모두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전쟁이 계속 되는 상황이 이어져 갔다. 전쟁 그림책에 묘사된 그림들은 그림의 요소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전쟁 상황이나 등장인물들 간의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쟁 그림책은 어린이 독자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겪는 전쟁의 고통을 보여주고 책 속에 그려진 어린이의 경험을 통해 전쟁을 더욱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분석해 보았다.

■ 주제어 : 전쟁 그림책, 전쟁, 평화, 어린이의 전쟁 경험

---

* 위노나주립대학교 교수, jwee@winona.edu

목차

1. 서론
2. 전쟁 그림책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4. 연구 분석결과
5. 토론
6. 결론

1. 서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의 기록에서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찾아볼 수 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전쟁이지만 어린이들 또한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2018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2018년에 230만 명의 난민 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핍박, 내전, 폭력, 인권 침해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80만 명의 인구가 강제적으로 난민이 되었다고 요약· 보고하였다. 이 중 절반의 인구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십년 전인 2009년에 어린이가 난민 인구의 41%였던 것에 비하여 어린이 난민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 무거운 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도 수많은 어린이들의 삶이 전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

1 유엔난민기구UNHCR(The UN Refugee Agency),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 https://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d08d7ee7/unhcr-global-trends-2018.html?query=Global%20trends(2019.07.22)

고 있는 인간으로서 전쟁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삶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전쟁에 대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해 보아야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각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전쟁 경험이 그림책을 통해 어떻게 어린이 독자에게 소개되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각각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겪는 공통된 경험을 살펴보고, 어린이 독자가 전쟁 그림책을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될 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전쟁 그림책

전쟁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슬프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알 필요가 있고 또 알 권리가 있다.[2] 전쟁과 같은 어린이들이 읽고 토론하기 어려운 사회정치적인 문제는 문학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쉽게 소개될 수 있다.[3] 더욱이 어린 독자층을 겨냥한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어린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전쟁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경험과 감정을 글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4] 예를 들면 데이비드 맥키의 『동쪽 괴물 서쪽 괴물』과 『코끼리 전쟁』, 아나이스 보즐라드의 『전쟁』에서는 대립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서

---

2 Walter, Virginia A.『War & Peace: A Guide to Literature and *New Media, Grades 4-8*』, Libraries Unlimited. 2007. P.9-13.

3 위종선,「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크리티컬 리터러시 연습하기」,『아동청소년문학연구』17, 2015. 35-68면.

4 페리 노들먼,『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 방법』, 보림, 2011.

로 다른 색으로 표현되어 어린이들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글과 그림 이외에도 작가는 작가의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자신의 전쟁 경험을 독자와 나누기도 하고[5] 그림책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야기의 배경 지식이 없는 어린이 독자에게 이야기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상황을 가르쳐 주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전쟁 그림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은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전쟁 그림책 전시와 카탈로그에서 볼 수 있다.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은 옐라 레프만에 의해 1949년에 설립되었는데[6] 그녀는 전쟁에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1946년부터 평화와 국제적 이해에 대한 책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어린이 책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옐라 레프만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녀가 설립한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은 1994년 1월 뮌헨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책을 전시하게 되는데 이 전시는 1997년까지 24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전시되었다.[7] 이후에도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은 1998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의 세계 모임(World congress)에서 Guten tag, Lieber Feind![8]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적!)라는 이름으로 19개국의 그림책 41권을 전시하였다. 이후 이 전시는 더욱 확장되어 일본,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의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순회전시되었다. 2019년 현재까지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

---

5 나선희, 「전쟁 그림책의 스토리텔링 - 작품의 고유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1), 2015, 143-183면.

6 옐라 레프만, 『어린이 책의 다리: 책으로 희망을 노래한 옐라 레프만의 삶』, 나미북스. 2014.

7 Scharioth, Barbara. 『Guten Tag, Lieber Feind!: Bilderbücher für Frieden und Toleranz Eine international Auswahl』, Internationale Jugend Bibliothek, 1998, p.3-4.

8 구드룬 파우제방의 그림책(1986, Inge Steineke 그림) Guten tag, Lieber Feind! 와 같은 이름이다.

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에 관한 그림책 카탈로그를 순회전시와 같은 이름인 Guten tag, Lieber Feind!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가장 최신의 전쟁 그림책 카탈로그는 2014년에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그림책에 대한 국제적인 출판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로 사계절 출판사는 중국 이린 출판사, 일본 도신샤와 함께 한중일 작가의 그림책을 공동 기획, 출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의 목표는 과거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오늘의 아픔을 서로 나누며, 평화로운 내일[9]"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사계절 출판사는 2010년에 『꽃할머니』(권윤덕 글 그림)와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이억배 글 그림)을 시작으로 2016년 『춘희는 아기란다』(변기자 글 정승각 그림)까지 총 11권의 평화그림책을 출판하였다. 그 중 다시마 세이조의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는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 2014년에 출판한 전쟁 그림책 카탈로그에 일본어 책제목 『ぼくのこえがきこえますか』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전쟁 그림책은 출판, 전시의 주제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분야에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민근애(2018)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국내 작가 그림책 12권을 분석한 결과 전쟁 그림에서 실제 전쟁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암시할 수 있게만 그려냈다고 지적하였다. 35권의 국내외 작가의 전쟁 그림책을 분석한 나선희(2015)의 연구에서도 전쟁 그림책에서 전쟁 장면이 많이 생략되고 글로만 간단히 쓰여 있어 독자가 전쟁 장면을 상상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연(2003)은 13권의 외국 작가가 쓴 전쟁 그림책 번역본을 살펴본 결과 그들

9 사계절출판사와 아람누리도서관이 함께하는 평화그림책 전시와 특별 강연. http://www.sakyejul.net/bbs/m/mcb_data_view.php?type=mcb&ep=ep993587793575e55ff04653&gp=all&item=mdsakyejulnotice27292(2019.07.22)

의 책에서 전쟁의 원인과 해결방식의 묘사가 부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민주(2008) 역시 전쟁 그림책에서의 비현실적인 전쟁 해결 방안을 비판하였다. 김금희(2012)는 조사된 대부분의 전쟁 그림책에서 전쟁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고 일반 픽션과 역사 픽션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 픽션에서는 전쟁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헤어짐과 구속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쟁 그림책은 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정리하였다. 전쟁 그림책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쟁이 해결 된 점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회피된 점. 단순화된 전쟁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재미로 느끼게 할 우려가 있고, 전쟁의 본질이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전쟁을 소개하고 그들이 전쟁에 대해 배우고 전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때 전쟁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어린이들이 전쟁에 대해 가볍게 여기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10] 하지만 이러한 전쟁 그림책의 특징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니콜라이 포포프의 『왜?』, 에릭 바튀의 『하얀 늑대처럼』, 또 비네테 슈뢰더의 『꺽다리 기사와 땅딸보 기사』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옛이야기 형식이나 우화, 또는 친숙한 캐릭터는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한 이야기와 재치 있고

10 Myers, L. 「What do we tell the children? War in the work of Roberto Innocenti」, 『Bookbird: A Journal of Inter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47(4), 32-39.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는 전쟁의 공포나 위협적인 감정이 어린이가 전쟁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11]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전쟁 그림책 선정을 위해 독일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 출판한 2014년 카탈로그『Guten Tag, Lieber Feind! Bilderbücher für Frieden und Menschlichkeit』(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적! 평화와 인류애를 위한 그림책)와 이 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사용하였다.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카탈로그(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이용한 이유는 이 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전쟁 그림책을 20년여전부터 조사 해 왔고,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전쟁 그림책 및 그와 관련된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논문의 저자는 연구자로서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2014년 전쟁 그림책 카탈로그에는 총 58권의 그림책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 53권의 그림책은 최소한 11개의 다른 언어로 출판되었고(어떤 그림책은 두 언어로 출판된 버전이 같이 소개되었다) 네 권의 그림책은 글자 없는 그림책이다.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는 전쟁과 그림책을 중심 키워드로 확장 검색하여 전쟁 그림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된 책 중

11 Raabe, Christiane.『Guten tag, Lieber Feind! Bilderbücher Für Frieden und Menschlichket』.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2014.p. 4-5.

외국 작품의 경우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 출판한 2014년 전쟁 카탈로그에 실린 책을 선택하여 연구 대상을 좁혔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책을 선택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더욱 좁혔다. 그 이외에 온라인 카탈로그로 검색된 그림 책 중 (1) 어린이가 전쟁을 직접 경험한 내용의 책, (2) 시대적 배경이 비교적 현대인 책(세계 1차 대전 이후, 옛이야기 제외), (3) 사실주의 그림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 작품 세 권과 한국 작품 한 권을 선정하였다.

『La composición』(Skármet, 2000), 『Nasreen's secret school. A true story from Afghanistan』(Winter, 2009), 『불타는 옛 성 1938』(차이까오, 2014), 그리고 『엄마에게』(서진선, 2014)이다. 『La composición』(Skármet, 2000)과 『Nasreen's secret school. A true story from Afghanistan』(Winter, 2009)의 한국어판은 『글짓기 시간』(안토니오 스카르메타 글, 알폰소 루아노 그림)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지네트 윈터 글, 그림)이다. 『글짓기 시간』은 이야기에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림에 묘사된 등장인물들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가 아닌 서양 어느 나라의 이야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국적으로 미루어보아 칠레 이야기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잘 알려진 칠레 작가로 칠레의 군부독재정권을 피해 독일에서 15년간 망명생활을 했다.[12] 『글짓기 시간』은 어느 특별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독재정권 이야기로 남자 어린이 페드로의 경험으로 묘사되어있다. 뮌헨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전쟁 그림책 카탈로그에서도 이 책을 전쟁 그림책으로 소개하였듯이 독재정권에 대한

12 『Hello, Dear Enemy! Picture Books for Peace and Tolerance, An International Selection』,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2006. p.13.

이야기 또한 전쟁 이야기로 간주하였다. 『글짓기 시간』에서 주인공 페드로는 어느 날 가족이 밤에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숙제를 받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페드로의 글짓기 숙제는 사실상 독재정권이 시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독자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나스린의 이야기로 나스린의 할머니가 나레이터이다. 할머니의 나레이션을 통해 손녀딸 나스린이 텔레반 몰래 비밀 학교를 다니며 조금씩 전쟁의 아픔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그렸다. 『불타는 옛 성 1938』은 제목이 이야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듯 1938년 옛 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중국 창사에서 전쟁 중 일어난 대화재 사건 이야기이다. 이 책의 영어판 『Blazing city』에서는 옛 성의 장소가 중국 창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판에서 볼 수 있는 창사 대화재 사건을 설명한 이해를 돕는 글도 실려 있지 않다. 『엄마에게』는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엄마와 동생들과 헤어진 어느 소년의 이야기이다.

선정된 세 권의 외국 작품은 모두 영어 번역판이 있고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도 출판되었다. 한국 작품 『엄마에게』는 이 연구 시점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차이까오의 『불타는 옛 성 1938』은 사계절 출판사가 참여한 한중일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 그림책 중의 한 권이기도 하다.

2) 분석 방법

전쟁 그림책에 그려진 어린이의 전쟁 경험 비교는 글과 그림 모두를 포함시켜 책의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선 선정된 네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읽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제를 적고 표를 만들어 내용 비교를 하였다(Gay & Airasian, 2003). 표는 세분화하여 세 개의 표로 만들어 보았다. 다시 책을 읽을 때 첫째, 그림책에서 주인공 어린이를 살펴보고, 어린이의 경험을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의 일상 파괴와 가족과의 이별 경험이라는 주제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둘째, 전쟁 그림책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방법을 참고로 하여 각각의 책에서 전쟁 원인, 전쟁 장면, 전쟁의 해결 방법을 찾아 비교해 보았다. 셋째, 그림에서는 그림 작가가 어떻게 적을 시각화했는지, 전체적인 그림 스타일과 색의 선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림책에서 작가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작가의 말에 포함된 정보를 살펴보았다.

4. 연구 분석결과

1) 일상의 파괴

네 권의 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띤 어린이의 공통된 전쟁 경험은 어린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를 제외한 세 권의 책에서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볼 수 있다. 대가족과 함께 미소 지으며 가족사진을 찍고(『엄마에게』), 바쁘게 돌아가는 옛 성에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장을 보고(『불타는 옛 성 1938』),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글짓기 시간』) 어린이의 모습은 현재를 살고 있는 여느 어린이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 나타난 전

쟁 전의 평화로운 일상은 나스린의 할머니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나스린의 할머니는 자신과 자신의 딸(나스린의 엄마)이 어렸을 때는 세상에 대해 배웠었다고 회고한다. 여기서 독자는 전쟁 전에 자유로웠던 아프가니스탄 여자 어린이의 일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평화로웠던 어린이의 일상은 전쟁으로 인해 빠르게 붕괴되는데,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전쟁 후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대신 부상당한 군인들을 나르고 치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준다. 긴장된 표정으로 화재를 보는 피난민들의 모습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타버린 도시의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뿐만 아니라, 집, 시장, 나아가 마을 전체가 전쟁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글짓기 시간』에서는 『불타는 옛 성 1938』에서처럼 집이나 마을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이 파괴되지는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편안함이 파괴된다. 그 예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적막한 페드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우는 페드로 엄마의 모습, 아빠가 붙잡혀 갈까봐 걱정하는 페드로의 모습에서 독재정권이 파괴한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엄마에게』에서는 삼대가 같이 살던 마당이 있는 큰 기와집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피난을 떠나는 주인공 가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추운 겨울에 보따리를 등에 지고 피난을 떠나는 주인공 어린이의 모습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려진 대청마루에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며 보내던 일상과 거리가 멀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 조사된 네 권의 전쟁 그림책에서는 전쟁 후에 파괴된 어린이의 일상의 모습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되어있다.

2) 가족과의 이별

『나스린의 비밀 학교』, 『불타는 옛 성 1938』, 『엄마에게』에서 어린이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다. 더욱이 그들의 이별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다. 『글짓기 시간』에서 주인공 페드로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지만 그의 친구 다니엘이 아빠와 강제적으로 이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글짓기 시간』, 『나스린의 비밀 학교』, 『엄마에게』에서는 가족과의 이별 장면이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림에도 그려져 있다. 『글짓기 시간』에서는 페드로의 친구 다니엘의 아빠가 일하는 도중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가는 장면이 주변 상황의 묘사와 다음에 인용된 등장인물의 대화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 페드로는 그제야 다니엘 아빠가 군인 둘에게 붙들려 가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군인들은 다니엘 아빠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어요.
>
> 다니엘이 자기 아빠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한 군인이 "비켜!" 하고 다니엘을 밀쳤어요.
>
> (중략)
>
> 군인들이 다니엘 아빠를 지프차에 밀어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니엘 아빠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었어요.
>
> 당장 한 군인이 총을 치켜들면서 "꼼짝 마!" 하고 소리쳤어요. (p.11)

대화와 더불어 다니엘 아빠의 모습이 크게 확대된 그림은 독자가 잡혀가는 다니엘 아빠의 감정을 그의 얼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진 군인과 체포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각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긴장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체포 장면에 이어진 그림에서는 아빠 가게의 열쇠꾸러미를 군인에게서 건네받은 다니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독자는 두 명의 커다란 군인들 등 사이로 열쇠 꾸러미를 두 손에 꼭 쥐고 곧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아직 어린이이지만 이제 아빠를 대신해서 아빠의 가게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다니엘을 향해 있지 않고 잡혀가는 다니엘 아빠를 향해 있다. 이는 방금 아빠와 강제적으로 헤어진 어린 다니엘을 더욱 더 소외시키고 외롭게 만든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도 나스린의 아빠가 끌려가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글짓기 시간』에서보다 더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나스린의 할머니는 어느 날 군인이 집으로 왔다고 간단하게 회고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독자로 하여금 탈레반 군인이 집으로 왔을 때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1) 커튼을 꼭 쥐고 몸을 가린 채 탈레반 군인과 아빠의 대면 장면을 지켜보는 나스린의 행동, (2) 입을 크게 벌리고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나스린의 얼굴, (3) 아빠가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랜턴이 바닥에 나뒹그러져 있는 모습. 더욱이 이 다음 이어지는 그림에서는 나스린의 아빠가 밧줄로 손목이 묶인 채 탈레반 군인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는 아빠와 탈레반 군인 사이의 힘의 상하관계가 그들이 처하고 있는 몸의 위치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스린 아빠의 몸은 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채 탈레반 군인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안정되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나스린의 아빠가 곧 넘어질까봐 걱정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한 손으로 아빠를 끌고 가는 탈레

반 군인은 두 발을 모두 땅에 내 딛고 있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탈레반 군인의 얼굴은 프레임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매고 있는 총은 보인다. 이는 탈레반 군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없고 그의 무자비함만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듯하다. 나스린의 아빠가 끌려가는 이 장면의 긴장감은 주변 환경의 묘사로 - 45도 이상의 각도로 기울어진 땅과 벽에 크게 갈리진 틈 - 고조되어있다. 여기에 까맣게 칠해진 하늘은 이 장면이 밤중에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이 그림과 짝지어진 할머니의 나레이션은 나스린의 아빠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무참히 끌려갔음을 독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시킨다.

> 그러고는 나스린의 아빠를 끌고 가버렸어. 바로 내 아들을 말이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말이야.

이 이야기에서 나스린은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와도 헤어지게 되는 데 아빠를 찾아서 집을 떠나는 엄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는 나스린의 모습은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엄마에게』에서는 피난을 떠나는 어린이 주인공이 가족과의 이별을 두 번씩이나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이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집에 남기로 하고 엄마와 주인공, 그리고 동생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일어난다.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와 동생,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 보따리를 들고 있거나 지고 있는 어린이들, 눈이 펄펄 날리는 상황은 등장인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별은 주인공이 아빠의 옷 보따리를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온 후 아빠와 함께 피난을 떠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주인공 어린이는 의

사인 아빠와 함께 환자들을 태운 버스를 타고 피난을 가는 중 수많은 피난민 속에 있는 엄마와 동생을 보게 되지만 그들을 버스에 태우지 못한 채 강제로 헤어져야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어린이 주인공이 아빠와 헤어지는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있지 않고, "전선으로 나간 아빠는 감감무소식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주인공 어린이가 아빠와 헤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전쟁의 묘사

(1)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 전쟁 장면, 전쟁의 종결 방식의 관점에서 네 권의 그림책을 분석 해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킨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글짓기 시간』에서는 아빠가 독재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잡혀간다고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 "왜 너네 아빠를 잡아가는 거야?"
>
> (중략)
>
> "독재를 반대해서."
>
> (중략)
>
> "그게 무슨 말이야?"
>
> (중략)
>
>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군인들의 독재를 반대하는 거지." 하고 대답했어요.
>
> "그래서 너희 아빠를 잡아갔단 말이야?"

"그래."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몰라." (p.12)

『엄마에게』에서는 어린이 주인공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쟁이 난 것을 알게 되는데 "백 만이 넘는 중공군이 내려와 사람들을 죽인다"는 무서운 소문을 듣는다.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침략자"라는 강력한 어조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역사에 기록된 정확한 시간(1937년)과 장소(루거우차오), 사건의 이름(칠칠사변)까지 밝혀 일본 침략이 허구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일본 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모든 것들 버렸다. 1937년 루거우차오에서 일어난 '칠칠사변' 이후 겨우 남짓 만에. 침략자들은 중국 땅 곳곳을 점령해 버렸다. (p.11)

영어판 『Blazing city 1938』에서는 루거우차오에서 일어난 칠칠사변이라는 어구가 생략되어있다. 그러나 "invaded"라는 단어를 사용해 1937년 일본이 침략했다고 번역하여 일본 침략이 평화로운 옛 성 마을 파괴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도 『불타는 옛 성 1938』에서와 같이 군대가 와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고 하였다. 왜 군대가 도시로 왔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으나 탈레반 군인이라고 명시하여 탈레반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탈레반은 나스린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탈레반 군인들이 "여자들

이 세상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학교에 다닌 것을 금지”했다고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2) 전쟁 장면

『불타는 옛 성 1938』이 네 권의 전쟁 그림책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 장면을 묘사하였다. 이 책에서는 부상당한 군인들로 분주한 옛 성의 모습과 불을 피해 여기저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각각 두 면에 걸쳐 (double page spread) 크게 묘사되어있다. 이 책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전체가 불에 타는 모습은 네 면에 걸쳐 파노라마형식으로 그려져 있어, 대화재의 안타까운 모습을 책의 두 배 크기로 독자가 볼 수 있다. 이는 평화로웠던 옛 성 마을이 전쟁으로 인해 불에 타 없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작가가 강조하고자 선택한 방법이라고 유추하여 보았다. 『엄마에게』에서는 폭격을 피해 어두운 토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토굴 입구로 멀리 보이는 폭격의 불꽃이 한 장면에 그려져 있다. 중공군 행렬과 피난민 행렬 장면 또한 전쟁 장면이라고 말 할 수 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들은 그림에서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다.

>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다. 아빠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집에도 자주 못 오셨다. (p.5)

『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 그려진 전쟁 장면은 묘하게 닮아있다. 이 두 그림책은 앞서 말한 『불타는 옛 성 1938』이나 『엄마에게』처럼 폭격이나 마을이 불에 타는 등 전쟁 중 일어나는 물리적인 파

괴 장면은 그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두 책에서 모두 총을 멘 군인을 볼 수 있고 어두운 집안의 분위기와 아빠가 군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두 책에서 모두 군인이 교실에 들어와 어린 학생들과 대면한다. 이러한 장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 전쟁 장면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전쟁으로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전쟁 장면이라고 분석하였다. 『글짓기 시간』에서는 어느 날 군인 장군이 교실에 찾아와 집에서 밤에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쓰라는 글짓기 숙제를 내 주는 장면이 거의 이야기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페드로는 친구 후안에게 뭘 써야할지 물어보면서 자신의 엄마 아빠는 밤에 라디오를 듣고, 엄마는 급기야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독자의 걱정은 커지기 시작한다. 친구들과 축구하기를 좋아하고 독재정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순진한 페드로를 보아왔던 독자는 페드로가 후안에게 말한 그대로 글짓기를 하게 된다면 페드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다니엘의 아빠가 잡혀간 장면을 상기하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쟁 종결 방식

우연치 않게도 네 권의 책 모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이 난다. 따라서 전쟁의 종결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야기에 나타난 전쟁의 마지막 묘사가 더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네 권의 전쟁 이야기의 끝을 살펴보면『엄마에게』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었다”라는 문장으로 독자에게 한국 전쟁의 휴전 날짜를 알리고 있다.『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마을을 네 장면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뒷면지로도 계속 연결되는데 뒷면지에서는 어린이 주인공

이 동생과 서로 기대어 다 타버린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 장면은 한 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모든 것이 타버린 마을에서 두 어린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지, 그들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 독자에게 안타깝고 막막한 감정을 남긴다.

『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톤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각각 독재정권과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어린이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데 그들은 어린이가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진 집단이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적을 상대하고 있다. 『글짓기 시간』에서는 페드로의 글짓기를 통해 독자가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페드로는 장군이 왜 글짓기 숙제를 내 주었는 지 그 의도를 파악했으며 독재정권으로부터 어떻게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지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페드로의 기지 있는 글짓기는 독자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고 장군을 완벽하게 속인 페드로가 장군을 이긴 것 같은 쾌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페드로는 더 이상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이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페드로는 독재정권에 맞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남긴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도 『글짓기 시간』에서 페드로가 장군을 속였듯이 탈레반을 속이는 소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갑작스럽게 비밀 학교에 탈레반 군인이 검문을 오면 소녀들은 하던 공부를 숨기고 코란을 읽는 척 해 탈레반을 속인다. 탈레반 정책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는 힘없는 소녀들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밀 학교에 모이고 세상에 대해 공부하는 소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탈레반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혼자 아무 말 없이 유령처럼 지

내던 나스린이 비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읽기와 쓰기,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는 모습은 독자에게 안타깝지만 희망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할머니의 나레이션처럼 아무리 힘 센 탈레반이라도 나스린에게 이미 열린 세상을 향한 창은 절대 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그림의 요소에 투영된 전쟁 경험

(1) 적의 시각화

네 권의 그림책은 모두 그림책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이야기를 시각화 하고 글과 상호보완적으로 이야기를 독자에게 표현하고 있다.[13] 그림 작가가 어떻게 적을 시각화 했는지 살펴 본 결과,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일본이라고 밝혀진 적을 시각적으로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적이 옛 성으로 불러 온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엄마에게』, 『글짓기 시간』,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의 적은 총을 메고 제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는 군인이 어린이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 데, 군인은 어린이 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고 있고 어린이보다 크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군인과 어린이 사이의 힘의 상하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대조하여 어린이 독자의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다. 구체적인 예로 『글짓기 시간』에서는 제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장군이 순진한 얼굴로 글짓기 숙제로 뭘 써야할지 고민하며 책상에 앞으로 기대어 있는 페드로 뒤에 서 있다. 곳곳이 등을 펴고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장군은 높

13 페리 노들먼 참조.

은 위치에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책상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페드로는 낮은 위치에 있다. 이 그림에 연속되는 다음 그림에서는 장군의 옆모습이 그림 한 가운데에 크게 위치하고 있어, 장군이 힘의 중심임을 암시하고 있다. 같은 장면에서는 또, 장군의 뒤로 네 명의 어린이들이 장군의 네 배 이상으로 작게 그려져 있다, 확대된 장군의 얼굴에서는 입술을 꾹 다문 장군의 심각한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이미 글을 쓰고 있는 두 명의 어린이들은 장군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에서 나타난 묘사들은 장군에게 저항할 힘없는 어린이들과 장군 사이의 힘의 상하 관계를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도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 들어온 탈레반 군인은 어린이들 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어린이들보다 두 배 이상 크게 그려져 있다. 한 손은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올린 채 다리를 벌리고 서있는 탈레반 군인은 바닥에 무릎 꿇고 허리와 고개를 숙여 코란을 읽고 읽는 어린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처럼 『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에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군인과 어린이들의 힘의 상하관계와 군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 그림책의 요소

네 권의 책이 각각 다른 네 명의 그림 작가에 의해 그려졌기 때문에 각각의 책에서 그 작가만의 스타일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네 그림 작가 모두 그림의 요소를 활용해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를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네 권의 책에서 모두 차분한 색과 무거운 질감을 볼 수 있으며, 세 권의 책에서는 프레임의 사용을 볼 수 있고, 네 권

모두 작가의 말을 포함하고 있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는 책 커버와 작가의 글을 포함해 모든 그림이 프레임 속에 그려져 있다. 프레임은 또 두 줄의 굵은 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 사는 나스린의 상황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제한되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은 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프레임의 사용은 『글짓기 시간』에서도 볼 수 있다. 독재정권 하에 자유가 억압된 삶은 프레임에 갇힌 그림으로 대변되고 있다.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는 불이 나기 이전과 마을이 불에 타는 모습은 프레임 없이 여백을 남기지 않고 종이의 끝까지 그린 블리드(Bleed)로 묘사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태운 후의 마을의 모습은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여백이 그림 주변에 남겨져 있다. 프레임으로 제한된 마을의 모습은 불이 난 이 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여 보았다. 또 여백을 이용한 프레임은 마치 흑백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는 독자가 불타버린 옛 성을 오래된 사진으로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불타는 옛 성 1938』은 시간의 흐름대로 묘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회색 톤의 색채와 흐릿한 선을 사용한 그림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오래된 다큐멘터리 필름이나 앨범을 보는듯한 효과를 준다. 이는 불타는 옛 성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독자에게 알리는 그림 작가의 의도된 색과 선의 선택이라고 본다.[14] 『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가 프레임을 사용하였다면 『엄마에게』와 『불타는 옛 성 1938』은 프레임 사용과 반대되는 블리드(Bleed)를 사용하였다. 특히 두 권 다 한 장면을 두 장에 걸쳐 그린

14 Zur, Dafna. 「Whose War Were We Fighting? Constructing Memory and Managing Trauma in South Korean Children's Fic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Children's Literature』 2(2), 2009, 192-209.

더블 스프레드 페이지(double page spread)를 이용하여 등장인물과 주변 상황을 독자에게 더욱 넓은 시야로 보여주고 있다. 『불타는 옛 성 1938』은 앞면지부터 뒷면지까지 모든 그림이 더블 스프레드 페이지로 그려져 있다.

색의 선택에서는 『불타는 옛 성 1938』에서만이 무채색이 사용 되었고 나머지 세 권은 유채색의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유채색이 사용된 세 권의 책 중에 『글짓기 시간』이 『나스린의 비밀 학교』와 『엄마에게』보다 더 밝은 톤으로 그림을 묘사하고 있지만 두꺼운 질감이 밝은 톤의 색채에 무게감을 주어 독재정권에 짓눌린 전체적인 이야기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또 밝은 톤과 빛의 존재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대낮에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와 『엄마에게』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한 톤 가라앉은 느낌의 색상과 두꺼운 질감의 그림이 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림의 요소 이외에도 네 권의 그림책은 모두 작가의 말 또는 이해를 돕는 글을 이용해 독자에게 이야기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의 말을 통해 독자에게 이야기의 바탕이 된 실제 이야기나(『엄마에게』)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불타는 옛 성 1938』), 이야기에 사용된 정치적 핵심 용어를 부연 설명하고(『글짓기 시간』), 통계 자료를 통해 전쟁 전후에 확연히 달라진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나스린의 비밀 학교』).

[표 1] 어린이 주인공의 전쟁 전과 후의 경험

	어린이 주인공	전쟁 전: 행복한 일상	전쟁 後: 가족과의 이별
글짓기 시간	남자 페드로 3학년	친구들과 축구를 즐김. (전쟁 전 아님 - 부모님의 걱정으로 이야기 시작)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친구 다니엘의 아빠가 잡혀감. 주인공이 자신의 아빠도 잡혀갈까봐 걱정함.
나스린의 비밀 학교	여자 나스린	할머니의 회고 -여성이 학교에 다녔음	이유없이 아빠를 잡아감. 엄마는 아빠를 찾아 집나감
불타는 옛 성 1938	여자	바쁜 시장터 모습, 앞면지에 묘사됨	전선으로 나간 아빠.
엄마에게	남자	행복한 대가족사진	첫 번째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와 헤어짐. 두 번째로 엄마와 동생들과 헤어짐.

[표 2] 전쟁의 묘사

	전쟁의 원인	전쟁 장면	전쟁 종결 방식
글짓기 시간	잡혀간 친구의 아빠가 독재에 반대했다고 친구가 알려줌.	친구의 아빠가 잡혀가는 장면, 고민하는 엄마의 모습, 긴장감 도는 교실, 장군의 학교 방문	언급 없음. 희망적인 느낌.
나스린의 비밀 학교	탈레반 군인이 모든 것을 바꿈.	아빠를 잡아감. 텔레반 군인의 비밀 학교 검열.	언급 없음. 희망적인 느낌.
불타는 옛 성 1938	일본 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언급됨.	불타는 마을.	언급 없음. 뒷면지, 폐허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뒷모습.
엄마에게	전쟁이 났다고 들음.	비행기를 처음 봄. 중공군 행렬, 피난민 행렬, 총에 맞아 죽은 사람(글에서 언급).	휴전.

[표 3] 그림의 요소

	적의 시각화	그림 스타일	색의 선택	작가의 말
글짓기 시간	제복 입은 군인	사실적 인물 묘사, 여백을 이용한 프레임 효과.	무거운 질감, 차분한 느낌.	독재정권에 대해 말함.
나스린의 비밀 학교	총을 든 탈레반	두꺼운 두 줄이 그려진 프레임 사용.	진한 색, 많은 색이 사용됨. 어두운 느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보. 탈레반 정권 전과 후의 여성에 대한 통계 제공.
불타는 옛 성 1938	나타나있지 않음	다큐멘터리 필름같은 느낌, 앞면지부터 뒷면지까지 전체가 더블 스프레드 페이지(Double page spead)사용. 블리드(Bleed)사용. 네 면에 걸친 불타는 장면, 불이 난 후 프레임 사용.	회색톤. 유채색 없음.	중일전쟁 중 1938에 일어난 창사 대화재 사건에 대한 설명.
엄마에게	중공군 행렬	대부분 더블 페이지 스프레드 사용. 블리드 사용.	진한색, 두꺼운 질감.	장기려 박사님의 가족이야기, 독일 베를린 장벽 언급.

5. 토론

『글짓기 시간』은 이미 이야기의 시작부터 독재정권이 존재하고 있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눌 수 없지만, 어린이의 경험을 전쟁 전과 전행 후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글짓기 시간』을 포함한 네 권의 책 모두에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어린이의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소소한 일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린이 독자에게 가족과의 즐거운 식사 시간이라든지 엄마와 시장가는 일, 학교에 매일 다니는 일등 그동안 사소하게 여겨왔던 하루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이러한 일상은 국적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독자가 이러한 일상조차 가질 수 없는 어린이 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네 권에 나타난 어린이의 공통된 전쟁 경험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어린이 독자는 전쟁이 불러올 공포스러운 미래를 그림책에서 볼 수 있다.

또 네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어린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쓰라린 경험을 겪는다. 이와 같은 전쟁 경험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겪게 되는 경험이지만, 가족과의 이별에서 겪는 경험은 어린이와 어른의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으며 걱정 없이 자라야 할 어린이가 가족과의 이별을 통해 어린이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강제적 성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빠와 헤어짐과 동시에 아빠의 가게를 책임져야 하고(『글짓기 시간』), 가족 중 유일한 남자인 아빠 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하고(『나스린의 비밀 학교』), 엄마가 그리워도 소리 내어 엉엉 울지 못하고 베게머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엄마에게』),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은(『불타는 옛 성 1938』) 전쟁이 야기한 어린이답지 않은 어린이의 모습이다. 둘째, 가족과의 이별은 어린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가거나(『불타는 옛 성 1938』), 나이든 부모님을 보양하기 위해 다른 가족과의 이별을 스스로 자처한다(『엄마에게』). 어린이에게 가족과의 이별은

그들이 결정한 바가 아니며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일어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어린이가 감당해야할 몫은 상당히 크다.

국내외 작가의 전쟁 그림책을 분석한 몇몇 선행연구에서 전쟁 그림책은 전쟁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전쟁 묘사를 피하였다는 분석이 있었다.[15]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김금희(2012)의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헤어짐과 구속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고 전쟁 장면은 현실적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을 사실주의 장르로 제한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네 권이라는 연구 대상의 제한적인 숫자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전쟁 그림책에서는 전쟁 장면이 생략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마을이 불에 타고 부상당한 사람을 실어 나르며(『불타는 옛 성 1938』) 한 겨울에 피난 가는 사람들을 그린 장면은(『엄마에게』) 실제 전쟁 상황을 어린이 독자에게 보여준다.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는 물리적인 전쟁 장면이 아니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들 - 예를 들어 강제로 체포되는 장면이나(『글짓기 시간』과 『나스린의 비밀 학교』),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장면(조사된 모든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또한 전쟁의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선행 연구의 분석처럼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부재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된 전쟁 그림책에서는 전쟁을 불러일으킨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왜 탈레반이 세상을 바꾸었고(『나스린의 비밀 학교』), 왜 일본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으나 독자에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가해자와

15 김경연 (2003), 나선희 (2015), 민근애 (2018), 이민주 (2008) 참조.

피해자를 독자에게 명확히 알리려는 작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를 제외한 다른 세 권의 작가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 출신으로 전쟁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린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나스린의 비밀 학교』의 작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은 아니지만 여성으로 탈레반의 여성 인권 박탈 정책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하고 있다. 전쟁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는 이유는 독자층이 어린이라는 점과 함께 그림책의 한정적인 정보의 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했었을 수도 있다.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네 권의 전쟁 그림책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16] 작가의 말의 통해 이야기와 관련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작가의 말은 독자에게 글에서 얻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작가의 말은 논픽션이기 때문에 작가의 말이 전달하는 정보는 독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가의 말은 이야기에서 그려낸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알리고 이야기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상의 파괴와 가족과의 이별 같은 어린이가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도 연결되어있다. 어린이들은 전쟁 경험을 통해 놀람, 두려움, 슬픔, 안타까움, 긴장감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게 되는 데, 이는 그림책에서 그림의 요소를 활용

16 나선희 (2015) 참조.

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았다.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전쟁 그림책 읽기로 확장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데, 색, 질감, 등장인물의 위치와 크기 등과 같은 그림 요소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찾아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 지 분석하여 본다면 그림책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린이들이 한껏 활용하여 책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17]

이 연구에서 조사된 전쟁 그림책에서 그려진 어린이는 전쟁의 희생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적에 대항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이기도 하다. 이는 어린이를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며 그들도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음을 암시한다.[18] 왜냐하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이 만든 사회가 왜 부조리한 지 알아야하며 적이 빼앗아간 나의 평화로운 삶은 무엇인 지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전쟁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는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쟁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전쟁 경험을 통해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한다. 또 어린이들이 그림책에서 묘사된 전쟁에 대해 토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공부하게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는 어린이들이 전쟁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보고 미래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본다.

---

17 Serafini, Frank. 「Taking Full Advantage of Children's Literature」. 『*The Reading Teacher*』. 2012, 457-459.
18 Walter, Virginia A. 『War & Peace: A Guide to Literature and *New Media, Grades 4-8*』, Libraries Unlimited. 2007. P.9-13.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전쟁 그림책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및 다른 나라 어린이가 겪는 공통된 전쟁의 경험을 찾아보았다. 분석된 전쟁 그림책에 나타난 공통된 어린이의 전쟁 경험은 어린이 독자에게 전쟁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고 평화로운 삶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어린이 독자와 나이가 비슷한 주인공의 전쟁 경험은 어린이 독자에게 전쟁을 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고 전쟁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여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쟁 그림책은 어린이들과 읽을 가치가 있다.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 해결 방법이 생략되어 있는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 조사된 그림책처럼 어린이의 전쟁 경험을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낸 그림책이라면 어린이 독자가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전쟁에 대해서 토론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전쟁의 장면이 물리적인 물체의 파괴나 등장인물의 신체적 고통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어린이 독자가 전쟁 장면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로 묘사된 경우에는 전쟁 장면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생긴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그림의 요소와 함께 분석하여 본다면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 또한 전쟁이 불러온 피해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쟁 그림책에 나타난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공통된 전쟁 경험은 어린이 독자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다른 나라 어린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밑거름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서진선, 『엄마에게』, 보림출판사, 2014.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글, 알폰소 루아노 그림, 서애경 옮김, 『글짓기 시간』, 아이세움, 2003.
지네트 윈터, 박희숙 옮김, 『나스린의 비밀학교』, 고래이야기, 2012.
차이까오 글, 차이까오, 아오쯔 그림, 『불타는 옛 성1938 』, 사계절, 2014.
Skármeta, Antonio, Ruano, Alfonso 그림, 『 The composition』, Groundwood Books, 2009.
Winter, Jeanette, 『Nasreen's secret school. A true story from Afghanistan』, Beach Lane Books. 2009.

2. 논문 및 평론
김경연, 「서구 그림책에 나타난 전쟁」,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1), 2003, 99-111면.
김금희, 「그림책에 나타난 "전쟁"의 이미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2012, 1-19면.
나선희, 「전쟁 그림책의 스토리텔링 - 작품의 고유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1), 2015, 143-183면.
민근애, 「그림책에서 전쟁 서사의 형상화 방식 연구: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8,
위종선,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크리티컬 리터러시 연습하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 2015, 35-68면.
이민주, 「그림책에 그려진 전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Myers, Lindsay. 「What do we tell the children? War in the work of Roberto Innocenti」, 『Bookbird: A Journal of Inter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47(4), 2009, 32-39.
Serafini, Frank. 「Taking Full Advantage of Children's Literature」, 『*The Reading Teacher*』. 65(7), 2012, 457-459.
Zur, Dafna. 「Whose War Were We Fighting? Constructing Memory and Managing Trauma in South Korean Children's Fic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Children's Literature』 2(2), 2009. 192-209.

3. 단행본
엘라 레프만, 『어린이 책의 다리: 책으로 희망을 노래한 엘라 레프만의 삶』, 나미북스.

2014.
페리 노들먼,『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 방법』, 보림, 2011.
Gay, L. R., & Airasian, Peter. (2003).『Educational Research: Competencies for Analysis and Application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Hello, Dear Enemy! Picture Books for Peace and Tolerance, An International Selection.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2006. p.13.
Raabe, Christiane.『Guten tag, Lieber Feind! Bilderbücher Für Frieden und Menschlichket』,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2014, p. 4-5.
Scharioth, Barbara.『Guten Tag, Lieber Feind!: Bilderbücher für Frieden und Toleranz Eine international Auswahl』, Internationale Jugend Bibliothek, 1998, p.3-4.
Watler, Virginia A.『War & Peace: A Guide to Literature and New Media, Grades 4-8』, Libraries Unlimited. 2007.

4. 기타
사계절출판사와 아람누리도서관이 함께하는 평화그림책 전시와 특별 강연. http://www.sakyejul.net/bbs/m/mcb_data_view.php?type=mcb&ep=ep993587793575e55ff04653&gp=all&item=mdsakyejulnotice27292(2019.07.22.)
유엔난민기구UNHCR(The UN Refugee Agency),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
https://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d08d7ee7/unhcr-global-trends-2018.html?query=Global%20trends(2019.07.22.)

Abstract

Comparing Children's War Experiences in Picture Books.

Wee, Jongsun
(Winona Stat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UN refugee agency's report,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 about a half of 70.8 million refugees are children below 18 years of age. Many children are suffering due to war or war related violence all over the world. War is not a topic that is far from children's daily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mmon children's war experiences and to analyze the war portrayed in the picture books that readers would vicariously experience. A total of four picture books about children's war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the children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their peaceful daily lives and the separation from their families. When looking at the reason of war, war scenes, and how the war ended, it was found that the reason of war was not explained but the group of people who started the war were clearly pointed out. The war scenes were also described realistically. In all four picture books, the stories did not end with the end of the war because the war was still going on. The picture books about war used the elements of pictures to show readers about

war situations and the relations of power between characters. From the educational standpoint, the picture books about war exhibit the sufferings that every human experience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The suffering helps children think about war more realistically through characters' experiences. Reading picture books about war may help readers feel empathy with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or are experiencing war. It also may create a chance for children to ponder their positions regarding war and hope for a peaceful life.

■ Key words : Picture books about war, war, peace, children's war experience.

■ 논문접수일: 2019. 10. 11.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